지역문학의 존재 방식

김 동 윤*

차 례

1. 들머리
2. '지역의 눈'에 의한 되받아쓰기
  1) 인물의 뒤집기
  2) 상황의 뒤집기
3. 마무리

1. 들머리

퍽 오랫동안 우리는 '국민(國民)'으로서만 지내왔다. 자기 지역에는 제대로 발 딛지 못한 채로 말이다.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고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정신을 드높"[1]여야만 한다는 강박관념 속에서 살아야 했기 때문이다. 민족과 나라의 일원으로서의 삶은 강조되는 반면 지역민으로서의 삶은 거의 무시되어 왔던 것이다. 지나친 중앙집권으로 인해 획일화된 삶을 지향함으로써 '보편성'이라는 헛것에 개별 지역마다의 '특수성'은 짓눌려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전국 방방곡곡이 서울 중심의 문화에 깊이 빠져든 채 허우적거리고 있

*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1968년 박정희 대통령이 제정 공포한 「국민교육헌장」.

다. 한 나라 안에서도 식민성이 엄존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제주도 사람들은 '물로 뱅뱅 돌아진 섬'[2]에 살면서도 삼면이 바다인 반도의 특성만을 익혀야 했고 고구려·백제·신라·발해·고려를 우리 역사로 줄기차게 공부하면서도 탐라국의 역사는 모른 채 살아야 했다.

이런 현상은 문학 분야에서도 다를 바 없다. 한국 현대문학의 경우, 우리가 익히 접해온 문학은 서울 문단을 중심으로 한 것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서울에서 활동해야만 문단에서 제대로 대접받는 풍조가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서울에서 활동하는 작가의 작품이라는 이유로 태작이 각광받기도 하고, 지방에서 활동하는 작가의 것이라는 이유로 좋은 작품이 묻혀버리기도 한다. 지방 출신의 많은 작가들이 각처에서 활동하고 있건만 고향에 계속 거주하고 있으면서 문학적 명성을 얻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어떻게든 서울에 가서 활동하거나 서울의 유수 문인들과 끈끈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한국문단에서든 지역문단에서든 그럴싸하게 행세할 수 있는 실정이다. 문학사 서술이나 문학연구도 서울문단에서 발표되고 거론된 것들이 그 주된 대상이 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곤란하다. 참다운 지역문학이 역동적으로 전개되어야만 한국문학이 좀더 다양한 색깔로 풍성해질 수 있다. 지역문학이 제대로 활성화되는 것이야말로 위기의 한국문학을 구하는 명약이 될 수 있음을 이제는 인식해야 한다.

그렇다면 참다운 지역문학이란 무엇인가. 전지구적으로 사고하고 지역적으로 실천하라는 말이 있듯이, 지역적 실천을 토대로 세계를 내다보는 문학이 바로 진정한 지역문학이다. 단순히 그 지역과 관련된 것을 소재로 삼아 썼거나 그 지역의 작가가 썼다고 해서 무조건 지역문학으로 대접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것을 지역문학으로 다룰 수는 있을지라도 그것이 지역문학의 논의 중심일 수는 없다. 진정한 지역문학의 생성과 발현은 '지역의 눈'을 갖게 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하다. 그래야만 지역의 주체들이 스스로 자신의

2) 제주민요의 한 구절.

문제를 당당히 발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역의 눈'은 어떻게 갖게 되는가. 필자는 제주문학에서 현기영 소설을 통해 그것을 확인하고자 한다.

2. '지역의 눈'에 의한 되받아쓰기

제주문학이 지역문학다운 모습으로 전개되기 시작한 시기는 1970년대라고 할 수 있다. 당시 화제작으로 떠올랐던 현기영·문충성 등의 작품들을 보면 모두 기존의 작품들과는 다른 시각으로 제주섬 사람들의 삶과 역사와 현실을 그려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말하자면 제주섬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지역의 눈'으로 보게 되면서 비로소 지역문학의 면모를 갖추고 더 나아가 한국문단에서도 의미 있게 자리매김되었다는 것이다.

4·3문학은 제주문학의 양상에서 가장 주목되어온 담론이다. 특히 현기영의 소설은 그 선봉에 우뚝 서 있다. 물론 거기에는 그럴만한 이유들이 충분히 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그의 소설이 4·3에 대한 기존의 공산폭동론을 확실히 배격한 작품이라는 데서도 찾을 수 있다.

4·3의 소설적 형상화 작업은 그것이 집중 조명받기 시작한 1970년대 후반 이전에도 외지 출신의 여러 작가들에 의해 간간이 시도된 바 있다.[3] 그 가운데서도 곽학송의 「집행인(執行人)」은 퍽 주목되는 소설이었다. 이 작품은 1969년 ≪창작과비평≫ 가을·겨울합본호에 발표된 중편으로 작가의 체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곽학송은 1948년 월남하여 "짧은 기간의 청년단체 가담을 거쳐 제주도공비토벌(濟州島共匪討伐) 그리고 6·25 참전으로 20대를 보냈"[4]던 작가다. 그의 월남과 4·3 토벌 경험은 그의 창작에 요긴한 밑거름이 되었다. 곽학송의 「집행인」은 공산주의가 싫어서 월남하여 4·3의 현장에 투입된 서북 출신 토벌대원들(안현수·이기호·김봉수 등)이 겪은 다양한 고통과 피해의 실상을 보여주는 데 주력한 작

3) 허윤석의 「해녀」(1950), 오영수의 「후일담」(1960) 등이 그것이다. 김동윤, 「4·3소설의 전개 양상」, 『4·3의 진실과 문학』(각, 2003), 51~55쪽 참조.
4) 곽학송, 『노농적위대』, 백민사, 13쪽.

품이다. 제주도사람들은 거의 빨갱이로 보였고 그들은 시도 때도 없이 자신들을 괴롭히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응징은 당연한 것이었음을 강조하는 등 토벌대의 명분을 부각시킨 작품이다. 반면에 제주민중들의 아픔과 상처는 상대적으로 축소하여 형상화되었다. 따라서 이 소설은 토벌대 활동자의 회억과 지배담론에 의존한, 지배권력이 공식역사로 규정해 놓은 4·3공산폭동론의 연장선상에서 씌어진 작품인 셈이다.

그런데 현기영은 그로부터 거의 10년이 지난 1978년 「순이(順伊) 삼촌」을 써서 같은 문예지 가을호에 발표했다. 그리고 「도령마루의 까마귀」를 ≪문학과지성≫ 1979년 가을호에, 「해룡(海龍) 이야기」를 ≪문예중앙≫ 1979년 가을호에 연이어 내놓았다. 현기영은 이 작품들에서 곽학송의 「집행인」에 나오는 여러 장면들을 뒤집어 놓는다. 현기영은 초기소설에서 매우 의도적으로 왜곡된 공식역사(official history)에 대한 '되받아쓰기(write back)'[5] 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보인다.

1) 인물의 뒤집기

「집행인」과 「순이 삼촌」·「도령마루의 까마귀」·「해룡 이야기」의 인물들을 한꺼번에 들여다보면, 서로 유사성이 있는 인물들이 변형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현기영은 곽학송의 논리를 뒤집기 위해 유사한 인물을 의도적으로 설정했다고 할 수 있다.[6]

---

5) '되받아쓰기'는 제국의 지배담론에 의해 정전화(正典化)·성전화(聖典化)된 이야기들이나 텍스트들을 다시 읽고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씀으로써, 그것들을 이용해 오히려 지배담론을 공격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탈식민주의 작가들은 역사를 재탐색하여 지배담론의 음모와 허구성을 드러내 폭로하고, 주변의 경험과 문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조명하는 반언술을 제시하게 된다. 이 전략은 성전화된 텍스트들에 대한 기존의 해석을 전복시키고, 탈식민주의적인 새로운 해석을 통해 불가시적으로 스며들어와 있는 지배이데올로기를 해체한다. 그리고 그러한 작업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기존의 텍스트에 자국의 문화와 시각을 유입시키는 과업을 성취한다. 고현철, 「탈식민주의 문화전략과 패러디의 상관성」, 『탈식민주의와 생태주의 시각』(새미, 2005), 42쪽, 55~59쪽 참조.

6) 「집행인」에 대한 「순이 삼촌」의 인물 뒤집기 양상에 대해서는 필자가 「4·3의 기

(1) 봉수↔고모부, 이등상사

우선, 현기영은 「집행인」의 인물 '김봉수'를 「순이 삼촌」에서 '고모부'로 변형했다. 「집행인」의 봉수는 해방 후 트럭운전사로서 평양에서 곡산까지 소비조합 물건을 나르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짐에서 흘러내린 캐러멜을 주워 먹었다가 국가재산을 탈취한 죄로 징역살이할 위기에 처하자 월남했다. 월남 직후 4·3 토벌에 투입된 그는 Y리의 어떤 집에 매일 밤 술 마시러 다녔는데 거기에 처녀가 있었다. 그는 그 집 처녀를 억지로 떠맡다시피 하게 되었다. 그 집에서는 작은 아들의 입산으로 경찰 성화에 못 견디게 되자 미덥게 보이는 토벌군인 봉수에게 기댈 심사로 인연을 맺게 만든 것이다. 그런 가운데 처녀가 임신하지만 그는 외면하고 제주를 떠나버렸다. 헌병대 운전병으로 근무하던 그는 6·25 때 해병대로 입대한 처녀의 오라비를 만나는데, 오라비는 아이를 내보이며 함께 제주도로 가자고 청했다. 그때부터 그는 제주에 정착해서 트럭운전을 하며 살게 되었다.

한편 「순이 삼촌」의 고모부는 평안도 용강[7] 출신의 서북청년으로 해방 직후 섬에 들어와서 토벌에 참여했다. 서청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기에, 할아버지는 서청 출신 군인이던 고모부를 얼러 고모와 결혼시킴으로써 딸과 가족의 안위를 도모했던 것이다. 서청 출신 군인들은 연대가 교체되어 육지로 떠남에 따라 대부분 제주로 돌아오지 않았으나, 고모부는 휴전과 더불어 처가를 다시 찾아 입도한 후 지금까지 제주에서 살아왔다.

이렇게 볼 때 봉수와 고모부는 서북 출신 월남민이면서 4·3 토벌군으로 활동하고 그 와중에 제주도 여자와 인연을 맺어 제주도에 정착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매우 유사하다. 여자의 가족들이 토벌군경으로부터 안위를

억과 소설적 재현」, 『항쟁의 기억과 문화적 재현』(선인, 2006), 243~253쪽에서 논의한 것과 대동소이하나, 여기서는 「도령마루의 까마귀」와 「해룡 이야기」의 양상도 함께 제시하였음을 밝혀둔다.

7) 「순이 삼촌」의 고모부가 평안도 용강 출신인 것은 「집행인」의 연대 참모장과 같다. 「순이 삼촌」 37쪽과 「집행인」 573쪽 참조. 이 글에서 「집행인」은 ≪창작과비평≫ 1969년 가을·겨울합본호에 발표된 작품을, 「순이 삼촌」·「도령마루의 까마귀」·「해룡 이야기」는 창작집 『순이 삼촌』(창작과비평사, 1980)의 것을 각각 텍스트로 삼았다.

도모하고자 의도적으로 짝짓게 했다는 점도 같다.

그런데 봉수와 고모부의 현실적 지위와 위상은 크게 다르게 나타난다. 봉수는 7남매를 두고 트럭 운전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유로운 생활은 아니었다. 사회경제적인 면에서 그다지 개선된 삶을 영위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말이다. 이에 비해 고모부는 도청 공무원(주사)으로서 제주시내에 살면서 큰 규모의 밀감밭까지 갖고 있는 성공한 인물로 나온다. 과거에 비슷한 처지에 있던 인물의 현실적 지위와 위상이 한 쪽은 여전히 궁핍한 데 반해, 다른 한 쪽은 적잖이 개선된 상황으로 형상화된 것이다. 토벌대의 고충과 회한에 비중을 둔 「집행인」의 형상화 방식에 대해 「순이삼촌」에서는 수긍할 수 없음을 드러내 보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현기영은 당시 토벌군들은 제주민중에 비해 사회의 기득권층으로 안정되게 살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하고 있는 셈이다.

「해룡 이야기」에서는 '토벌군 이등상사'가 봉수와 유사한 면을 지닌 인물이다. 해변마을로 소개되면서 학살의 위기에 처했던 중호의 어머니는 뜻밖의 인물을 만나 목숨을 부지한다. 서북 사투리가 억센 토벌군 이등상사가 중호 어머니의 반반한 용모에 반해 목숨을 구해주고 살림을 차리게 한 것이다. 그 덕에 중호 외갓집에서는 도피중인 중호 외삼촌의 행방을 추궁당하며 경찰에게 시달리는 일이 사라진다. 하지만 그 뜨내기살림은 이등상사가 부대를 따라 육지로 떠남으로써 일 년 몇 달 만에 파탄나고 만다. 둘 사이에 소생이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집행인」의 봉수와 대비해 볼 때 공통점과 차이점을 함께 지닌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토벌군으로서 제주여인과 동거하다가 육지로 떠난다는 면이라든가 둘이 인연을 맺은 후에 여자의 가족이 더 이상 군경에게 시달리지 않았다는 면에서는 공통점이 있고, 제주여인과의 동거 경위가 자의에 따라 이루어진 데다가 아이도 없었고 다시 제주로 돌아오지도 않았다는 면에선 차이가 있다. 이등상사가 봉수보다 부정적인 면이 많은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역시 곽학송이 창조한 토벌군보다 현기영이 창조한 토벌군이 더 부정적으로 나타난다.

(2) 기호↔이북사투리 장교, 오 순경, 이등상사

「집행인」의 '이기호'는 붉은 군대와 김일성 장군을 찬양하는 구호에 격분해 항의하다가 김일성의 인척인 강양욱 집에 수류탄을 던지고 형무소로 끌려가다가 도망쳐 나온, 투철한 반공의식을 소유한 인물이다. 그는 빨갱이 때려잡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제주도에 투입된 직후 7명의 수형자(주민)를 총살하고 나서도 "자랑스러운 듯한 표정"(555쪽)을 짓는다. 그런데 얼마 후 자신들에게 처형된 수형자들이 우익인사들임이 밝혀진다. 그런데도 실질적으로 그 일을 도모한 문태길 상사는 증거가 없어서 체포되지 않자, 격분한 기호는 아무런 절차 없이 독단적으로 문 상사를 총살해버린다. 그는 공비 토벌에도 매우 적극적이었다. 뛰어난 활약 덕에 그는 이등병에서 4계급 특진하여 일등중사가 된다. 그는 봉수와 현수를 일본으로 밀항시키려던 민보단장을 '진벌갱이'(576쪽)로 규정하여 해치워버린다. 아무런 절차도 없이 그럴 수 있느냐는 지적에 그는 "공비들이 우리를 습격할 때 절차를 밟던가? 우리의 적은 무장공비만이 아냐, 가까운 주변부터 쓸어 버려야 돼."(576쪽)라고 반박한다. 선임하사로서 소대를 이끌고 초토화 작전에 나서게 된 기호는 집집마다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지르는 강경작전을 지시한다. 화염에 휩싸인 집에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자 소대원들은 그의 지시에 따라 총을 쏘아댔고, 17명의 주민들이 순식간에 죽었다. 기호는 시신을 묻으려고 구덩이를 파는 봉수의 행위마저 막았다. "시체를 간수해 줄 만한 것들이라면 애당초 죽이질 않았"을 것이니 "까마귀밥이 알맞다"(580쪽)는 논리다. 오로지 "제주도 빨갱이만 소탕하면 우리 임무는 끝"(575쪽)이라는 게 기호의 생각이다.

기호는 「순이 삼촌」의 '이북사투리 장교', 「도령마루의 까마귀」의 '오 순경', 「해룡 이야기」의 '토벌군 이등상사'와 견주어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집행인」의 기호인 경우에는 이북사투리 장교, 오 순경, 토벌군 이등상사보다는 긍정적인 면이 많이 부각된 인물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기호는 냉혹하긴 했지만 지적이며 우국적인 면모를 보이는 인물인 데 비해, 현기영이 창조한 서북 출신 인물들은 그렇지 못하다. 특히 「도령마루의 까마귀」의 오 순경은 "저 순경 옷이 어쩌면 저렇게 까마귀 날갯죽지를 닮

았을까. 게다가 바람에 날아갈세라, 턱끈까지 내려매고 눈썹 위로 푹 눌러 쓴 모자 차양도 까마귀 부리처럼 뾰족하다. 그러니 서호 본고장 사람들이나 노형 피난민들이 저 오(吳) 순경을 까마귀 오가라고 부르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82쪽)라고 희화화되고 있기도 하다. 토벌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곽학송은 토벌대의 명분과 학살의 불가피성을 강조했지만, 현기영은 제주민중의 입장에서 그들의 부도덕성과 과잉진압 행위 등을 문제 삼은 것이다.

(3) 순이↔순이 삼촌, 귀리집, 중호 어머니

「집행인」의 민구 처 '순이'는 「순이 삼촌」에서 같은 이름의 '순이 삼촌'으로 변형되어 나타난다. '순이'는 지극히 평범하면서도 순박한 여성이 연상되는 이름이다. 따라서 평범하고 순박한 여성들을 두 작품에서 각기 어떻게 그려냈는지를 살피면 그 차별성을 확인할 수 있다.

「집행인」의 순이는 입산한 아버지와 오빠 둘과는 달리 마을에 남아 있었는데 민구와의 사이에 아기가 하나 있었다. 남편은 토벌대에 입대하고 친정 식구들은 입산한 경우다. 그런데 그녀는 토벌대에게 우호적이지 않았다. 그녀는 토벌대에 겁간당하고 나서 입산할 생각을 굳혀간다. 민구가 동행하지 않자 그녀는 혼자 입산키로 결심한다. 순이는 결국 빨치산이 되어 소개령이 떨어진 마을에 남아 있다가 토벌대의 총에 죽는다.

한편 「순이 삼촌」의 순이 삼촌은 스물여섯 살에 사태를 만나 엄청난 수난을 당한다. 다른 많은 제주여성들처럼 그녀는 서청의 횡포에 시달린다. 남편이 있는 곳을 대라고 추궁당하며 성적인 모욕까지 겪던 순이 삼촌은 굴속에 숨어 지내다가 오누이를 데리러 마을에 내려와 있던 중 학살 현장으로 끌려간다. 그녀는 군인들의 무차별 총질의 와중에서 까무러쳐 시체더미에 깔려 있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났지만, 학살 현장에서 오누이를 잃고 청상과부가 되고 만다. 임신 중이던 그녀는 아이를 낳고 살아갔으나 온전한 삶이 아니었다. 피해의식과 지독한 결벽증에 시달리고 신경쇠약에다 환청증세까지 있어서 절간에서 정양하기도 했으나, 그 생채기는 더욱 깊어져 갔다. 정신적 상흔으로 인해 서울 상수네 집 생활도 순탄하지 않아, 특히

상수 아내와 이런저런 갈등을 표출한다. 그러다가 일년을 못 채우고 귀향한 뒤 한 달 만에 옴팡밭에서 음독함으로써 쉰여섯의 생애를 마감한다.

아울러 「도령마루의 까마귀」에서는 '귀리집', 「해룡 이야기」에서는 '중호 어머니'가 「집행인」의 순이와 관련시켜 볼 수 있는 인물들이다. 귀리집은 식량을 구하지 못해 어린 아기를 잃는가 하면, 아들 순원이와도 떨어져 살아가는 처지다. 남편은 빨치산에게 납치되었다가 도망쳐서 피신하고 있었는데 결국 학살현장의 송장더미에서 시신으로 발견된다. 그녀는 남편의 시신이라도 보전하기 위해 감시자의 눈을 피해 그것을 몰래 감춰둔다. 중호 어머니의 경우도 남편은 토벌군이 무서워 몸을 숨긴 후로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었으며, 그런 와중에 토벌군과 1년여를 동거하면서 목숨을 부지하게 된다. 그 때의 일로 인해 그녀는 자격지심에 아들 대하기를 어려워하면서 30년을 홀로 살아오고 있다. 사태의 와중에서 성적(性的) 대상 등으로 마구 휘둘리고, 나아가 그로 인해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제주여성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집행인」의 순이는 입산 후 빨치산으로 활동하다가 희생되는 데 반해, 「순이 삼촌」의 순이 삼촌을 비롯해서 「도령마루의 까마귀」의 귀리집이나 「해룡 이야기」의 중호 어머니는 양민 희생자인 것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집행인」은 토벌대의 입장을 내세우는 작품이어서 순이의 죽음이 피할 수 없는 희생임을 강조한 것인 데 반해, 현기영의 초기소설인 경우 토벌대의 과잉진압 문제를 고발하려는 제주민중의 입장에 서 있음으로 인해 무고한 양민의 억울한 희생이 부각되는 데서 드러나는 차이라고 할 수 있다. 곽학송은 당시 토벌대가 제주사람들을 모두 빨갱이로 볼 수밖에 없었음을 은근히 입증코자 했지만, 현기영은 그 수많은 죽음의 대부분이 이념 충돌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희생이 아니라 과잉진압으로 인한 억울한 죽음이었음을 역설한 것이다.

(4) 현수↔상수, 중호

현기영은 플롯을 이끌어가는 중심인물들을 통해서도 「집행인」의 관점을 뒤집어 놓는다. 특히 「순이 삼촌」에서 서사적 사건을 바라보는 인물,

즉 초점 주체의 역할을 수행하는 인물인 '나(상수)'의 인식이야말로 「집행인」의 '현수'와 매우 대조적이어서 4·3의 현재적 함의를 파악하는 중요한 인자가 된다. 그 둘은 모두 소설적 현재에서 어떤 계기로 제주를 방문한다. 현수는 사고 후 현실도피성으로 기차를 탔다가 결국 20년 만에 제주에까지 건너가게 되고, 상수는 가족묘지 매입 문제로 할아버지 제사에 맞춰 다녀가라는 큰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8년 만에 귀향한다.

「집행인」의 현수인 경우 소설적 현재인 1960년대 말 한강에서 잉어잡이 고깃배를 띄우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홍수로 강물이 분자 관할 경찰서의 요청에 의해 나룻배 사공이 되어 사람들을 실어나르는 일을 하게 된다. 그 닷새째 되는 날 불행히도 그의 배가 자갈 운반용 쇠배와 충돌해 뒤집히는 사고가 나는 바람에 승객 7명이 사망한다. 그는 강가에 뉘어진 시체들을 보면서 20년 전 제주도에서 그런 광경을 목도했던 일을 떠올린다. 고구마밭 이랑에서 수형자 7명을 총살했던 기억이다. 이렇게 이 두 장면이 오버랩 되는 부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현수의 입장에서는, 현재 한강가에서의 사건이 자의에서가 아니라 행정 관청의 요청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을 실어 나르다가 벌어진 우발적 사고임을 은근히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4·3 때 자신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였다는 인식을 깔고 있다. 한강가의 사건이나 제주도 사건이나 모두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끼어들게 되면서 발생한 사건임을 항변하려는 의도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4·3 토벌에 동원된 것이 자의에 의한 행동이 아니었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제주사람들의 희생도 역시 불가피한 것이었음을 해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현수가 민구를 공비라는 이유로 총살하고 나서, 봉수·기호와 함께 민구가 희생된 자리에 자연석으로 만든 비석을 세워준 사실을 드러내는 장면도 의미가 있다. 이것도, 비록 어쩔 수 없이 친구를 죽여야 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도리는 다 했음을 드러내는 행위로 볼 수 있다. 특히 현수가 그때 친구를 총살한 집행인이었다는 사실에 20년 동안이나 시달리며 괴로워했음이 작품에서 강조되는 것도 동일한 맥락이다. 현수는 총상으로 흉측한 모습을 한 민구에게 "내가 뭐 잘못했나? 난 집행인에 지나지

않았단 말야. 난 그 집행인이 안 되기 위해, 혼자 살아왔어. (…) 민구, 제발 날 용서해"(612쪽)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런 현수의 절규가 민구에게 외면당하는 상황으로 작품이 마무리되고 있다. 자신들은 해방 직후에도 그랬듯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 사회의 희생양으로서 불행한 처지로만 존재한다는 논리다. 말하자면 서북 출신으로서 불가피한 상황에서 토벌에 참여한 자신들도 제주사람들 못지않은 피해자로서 오랜 세월을 고통 속에서 살고 있음을 강조하는 담론이다.

반면에 「순이 삼촌」의 상수는 제주민중의 억울한 죽음과 고통의 세월을 밝히려는 인물이다. 상수는 처음에는 4·3 때의 학살을 화제로 삼은 친척들의 대화를 경청하는 태도를 취한다. 그러다가 제삿집의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내세우는 길수형에 동조하며 점차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간다. 고모부가 도민 대다수에 좌익 혐의를 두자 그는 "당시 삼십만 도민 중에 진짜 빨갱이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햄수꽈?"(70쪽)라고 반박하고, '비무장공비'라는 언급에 대해서도 "도대체 비무장공비란 것이 뭐우꽈? 무장도 안 한 사람을 공비라고 할 수 이서마씸? 그 사람들은 중산간 부락 소각으로 갈 곳 잃어 한라산 밑 여기저기 동굴에 숨어살던 피난민이우다."(70쪽)라고 일침을 가한다. 그러기에 그는 "아, 떼죽음당한 마을이 어디 우리 마을뿐이던가. 이 섬 출신이거든 아무라도 붙잡고 물어보라. 필시 그의 가족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아니면 적어도 사촌까지 중에 누구 한 사람이 그 북새통에 죽었다고 말하리라. 군경 전사자 몇백과 무장공비 몇백을 빼고도 5만 명에 이르는 그 막대한 주검은 도대체 무엇인가? 대사를 치르려면 사기그릇 좀 깨지게 마련이라는 속담은 이 경우에도 적용되는가. 아니다. 어디 그게 사기그릇 좀 깨진 정도냐."(71쪽)라며 다소 흥분된 어조로 발언한다. 상수의 이러한 발언은 빨갱이를 소탕한다는 토벌대의 명분에 제주섬의 수많은 양민들이 무고하게 희생되었음을, 그런데도 빨갱이라는 누명이 씌워진 채 살아가는 현실을 고발하는 담론임은 물론이다. 「집행인」의 현수의 논리를 「순이 삼촌」의 상수가 바로 맞받아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상수의 발언은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작가의 목소리다. 4·3에 대한 기존의 왜곡된 인식이 바로잡혀야 함을 현기영은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해룡 이야기」의 초점주체는 '문중호'다. 30대 후반인 그는 대종합상사의 판매부장이다. 제주 출신인 그는 아예 서울사람으로 살려고 한다. 서울에서 대학 다니고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며 서울여자와 결혼하고 본적까지 서울로 옮긴 데다가 서울말을 구사하려고 노력한다. 고향사람들과의 접촉도 웬만하면 삼가며 반듯한 서울사람 행세를 하려고 몸부림쳤다. 중호의 이런 행동의 저변에는 4·3의 광풍이 자리 잡고 있다. 토벌대의 소개 작전에 쫓기며 생사를 넘나들던 기억, 끝내 행방불명된 아버지, 토벌군과 동거하며 목숨 보전한 어머니, 고아도 아니면서 고아원에 맡겨졌던 일, 사태가 끝나도 어머니에게 가지 않고 고아원에 남아야 했던 상황 등은 그를 고향에서 멀어지게 했다. "그 악몽의 현장, 그 가위눌림의 세월, 그게 고향이었다. 그러니 고향은 한마디로 잊고 싶고 버리고 싶은 전부였고, 행복이나 출세와는 정반대의 개념으로 이해되었"(134쪽)던 것이다. 하지만 그런 삶의 방식은 억지로 고향동창들의 모임에 나간 것을 계기로 무너지기 시작한다. 그는 거기서 과거의 실체를 만난다. 그 과거는 기억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현재진행형이었다. 술 취해 사투리로 지껄이는 사이에 한 친구가 부른 노래는 30년 전의 아픈 기억을 되돌려 주었다. 그 이후로 상념에 잠겼던 그는 감추고 싶었던 그것이 잘못임을 깨닫는다. 피해자일 뿐인 어머니에 대한 반감은 가당찮은 것임을 알았다. 가해자한테로 향해야 할 분노가 차단된 데서 생긴 엉뚱한 부작용이었다. 제주도 해변을 수시로 침범해 약탈·겁간·살인을 자행하던 왜구들이 전설 속에서 해룡으로 묘사되어 그 악행이 인력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인 양 돌려지는 것처럼, 자신이 지녔던 반감은 역사의 진실을 묻어버리고 왜곡시키는 감정임을 인식했다. 결국 중호는 "꿈쩍꿈쩍 잘 놀라는 어릴 적 소아병을 이제 청산해야지. 겁낼 게 아니라 불같이 노여워하고 무섭게 증오해야 한다. 그래야 나의 주눅든 피해의식을 극복할 수 있다. 해룡의 탈을 벗기고 그 흉측한 정체를 알아봐야겠다. 막연히 육지 토벌군이니 서북군이니 할 게 아니라 구체적인 인명과 사례를 알아보자."(138쪽)고 다짐한다. 중호의 이런 다짐은 왜곡된 4·3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작가의 확고한 신념과 상

통하는 것으로, 「집행인」에서 제기된 현수의 논리를 맞받아 공박하고 있는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2) 상황의 뒤집기

현기영의 초기 4·3소설들은 「집행인」에서 그려진 사태와 관련된 여러 상황들을 뒤집어 놓는다. 그것은 매우 유사한 상황을 설정해 놓는 가운데 그 해석을 상반되게 내리는 방식으로 표출된다. 매우 의도적으로 구사되는 되받아쓰기 전략인 셈이다. 그 몇 가지 예를 제시해 본다.

(1) 노래

곽학송의 「집행인」과 현기영의 「해룡 이야기」에는 똑같은 노래가 불리어진다. 그것은 조명암의 시에 박시춘이 곡을 붙인 「서귀포 칠십리」라는 가요의 개사곡이다.

> "들어봐, 저 합창소리를. 지휘하는 여자가 누군지 알지? 바로 내 처야. 제주 출신이 아닌 너도 느낌이 있을 거다. 하찮은 유행가지만 말이야. 주민들은 호소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에게…… 바닷물이 철썩철썩 타고남은 제주도……불사르던 폭도들은 어디로 갔나……국방군도 그리워라 경찰관도 그리워……제주도 사백리에 양민이 운다…… 한 잔 더 받아!"
>
> 노래 같은 건 부를 줄도 들을 줄도 모르는 현수도 민구의 심경은 납득이 되었으나 술잔은 받지 않았다. 생리가 받아들이지도 않았거니와 그때 마침 밖에서 누가 부른다는 동료의 전갈이 있어서였다.
>
> 봉수인 줄만 알았던 현수는 거기 잔뜩 찌푸러진 기호의 얼굴을 대하고는 주춤했다.(…)
>
> "(…) 현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내 눈엔 민구도 수상하다. 그의 처는 말할 것두 없구."
>
> "기호!"
>
> 저도 모르는 새에 현수의 입에서는 외마디 소리가 토해졌다.
>
> "왜? 내 말이 잘못된 것 같아? 민구가 외고 있는 가사를 따져보란 말이다."
>
> "……"

"공비와 우리를 동일시하고 있는 거다. 그 가사를 고친 자는 양민구인지도 몰라. 공산당의 수법이 그렇다는 걸 뼈저리게 느낀 현수만은 공감이 될 줄 안다. (…)"(「집행인」, 563쪽)

그런데 그 날 중호가 정작 충격을 받은 것은 헤어질 무렵에 부른 명국의 노래였다. 그 노래는 느닷없이 중호에게 30년 전의 아픈 기억을 홱 되돌려주었던 것이다.

바닷물이 철썩철썩 타고남은 제주도
불사르던 폭도들은 어디로 갔나.
국방군도 그리워라 경찰관도 그리워.
제주도 사백리에 양민이 운다.

본래 가사는, 바닷물이 철썩철썩 파도치는 서귀포, 진주 캐던 아가씨는 어디로 갔나. ……로 시작되는 유행가인데 30년 전 당시 섬사람들이 토벌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이렇게 가사를 바꿔 불렀다. 그러니 불사르던 것은 폭도들만이 아니었다.(「해룡 이야기」, 124쪽)

「집행인」에서는 토벌군 위문공연에서 이 노래가 불려지고 있으며, 「해룡 이야기」에서는 서울에서의 고향동창 모임의 막바지에 한 친구가 부르고 있다. 전자에서는 제주도민들이 모두가 한통속이어서 믿을 수 없는 존재임을 부각시키는 근거로, 후자에서는 잊고 싶던 4·3의 광풍을 떠올려 그 진상규명을 향한 신념을 다지는 계기로 노래가 활용되고 있다. 똑같은 대상이지만 현기영의 '지역의 눈'이 곽학송의 시각을 전복시키고 있는 것이다.

(2) 포고문

정부수립 이후에도 제주도 사태가 진정되지 않자 이승만 정부는 이를 정권에 대한 도전 차원으로 인식하고 강경진압을 도모하게 된다. 정부는 1948년 10월 11일 제주도경비사령부를 설치한 데 이어 11월 17일에 기어이 계엄령을 선포한다. 이 계엄령에 따라 계엄사령관은 소개령을 내리고

그 소개령을 담은 포고문이 도내 곳곳에 나붙게 된다.

"엉뚱한 생각 말구 잘 들어. 계엄사령관 포고문엔 오늘 십칠시까지 H리 혹은 N리로 소개치 않는 자는 공비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지금 현재 늘어붙어 있어. 민구 처가 무식해서 포고문을 못 읽을 까닭두 없구 말야. 남아 있는 경우, 현수 손으로 죽일 용기 있나? 약속한다면 소대 선임하사 이기호로써 안현수 일등병을 출동병력에 포함시키겠다."

"……"

그때까지 둘의 대화를 듣고만 있던 봉수가 결론을 내렸다.

"뭣덜 기린마, 벌갱이야 우리 손으로 죽이야디. 벌갱이라면 제 네펜네도 죽이는 판인데, 기호 님자는 뭘 기린마, 현수 아우가 못 죽일 것 같음마."

새벽의 D리는 안개 속에 잠겨 있었다. 삼십호 남짓한 부락민 대부분은 이미 소개한 뒤였다. 겉으로 보기엔 무인지경이었다. 세 집 건너 한 장씩 붙어 있는 계엄사령관의 포고문들이 한결같이 찢기워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다.

"가장 악질부락이야. 포고문들을 봐. 정상을 참작할 여지는 손톱만치도 없어. 남아 있는 놈은 노인이든 어린애든 용서할 수 없어, 저 포고문들을 봐."

기호는 대원들에게 집집마다에 휘발유를 끼얹기를 명하였다.(「집행인」, 577쪽)

"겔쎄, 나도 중산간 부락민들을 해안지방으로 소개시키는 데 참가했었쥬만은…… 겔쎄 말이여, 일단 몇날 몇시까지 소개하라고 포고령이 내린 후제도 계속 작전지역에 남아 있는 자는 공비나 공비 동조자로 간주해서 노인, 아이 할거없이 전부 사살하라는 명령은 있었쥬. 사실 작전지역 내의 어떤 부락에 들어서민, 바로 전날에 두 집 건너서 하나씩 붙여놔둔 소개하라는 포고문이 발기발기 찢어젼 바람에 펄럭펄럭하는디, 이건 틀림없이 공비 소굴이구나 하는 생각이 팍 들더라. 그런디 이 부락 사건은 소개하라고 사전에 포고령도 없어시니……"

그러나 작전명령에 의해 소탕된 것은 거개가 노인과 아녀자들이었다. 그러니 군경 쪽에서 찾던 소위 도피자들도 못 되는 사람들이었다. 그런 사람들에게 총질을 하다니! 또 도피생활을 하느라고 마침 마을을 떠나 있어서 화를 면했던 남정네들이 군경을 피해 다녔으니까 도피자가 틀림없었겠지만 그들도 공비는 아니었다. 사실 그들은 문자 그대로, 공비에게도 쫓기고 군경에게도 쫓겨 할 수 없이 이리저리 피해 도망다니는 도피자일 따름이었다.(「순이 삼촌」, 61~62쪽)

「집행인」에서는 포고문이 찢긴 상황이 강경토벌의 명분을 정당화하는 방편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토벌군은 '세 집 건너 한 장씩 붙'인 포고문들이 '한결같이 찢기워 바람에 나부끼'는 것을 보고 '가장 악질적인 부락'으로 단정하고 있다. 「순이 삼촌」에서도 고모부의 발언을 통해 그런 상황을 그려놓는다. 토벌에 나섰던 고모부는 '두 집 건너서 하나씩 붙여놔 둔 소개하라는 포고문이 발기발기 찢어져 바람에 펄럭펄럭하는디, 이건 틀림없이 공비 소굴이구나 하는 생각이 팍 들더라'고 당시를 회상한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어지는 서술을 통해 「집행인」과는 달리 그것을 빌미로 무고한 양민들이 많이 희생되었음이 강조되어 있다.

(3) 소개(疏開)

1948년 11월 중순께 중산간마을 거주자에게 통행금지를 포고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는 이유를 불문하고 총살에 처한다는 강경진압작전이 전개되었다. 이 작전에 따라 이듬해 2월까지 약 4개월간 토벌군은 마을에 불을 지르고 주민들을 집단으로 살상했다. 이 기간 동안 많은 제주도민들이 희생되었고 대부분의 중산간마을이 초토화되었다. 토벌군은 주민들에게 소개령(疏開令)을 내려 해변마을로 내려오도록 했으나, 일부 마을에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 채 전달되기 전에 토벌군이 들이닥쳐 방화와 총격을 가하기도 했다.[8] 4·3의 전개과정에서 가장 참혹한 상황을 초래한 이같은 소개령과 그에 따른 문제들에 대해 「집행인」이나 현기영의 소설이 간과할 리가 없다.

> "저 속에 노인이나 부녀자 등 비전투원이 있을지 모르지만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들도 곡식을 먹어야 살아. 그리고 그 곡식을 무장공비가 나누어 먹어. 자진해서 내놓지 않으면 뺏어서라두 먹어. 말하자면 우린 거점 하나를, 아주 중요한 거점 하나를 없애버리는 거야. 현수! 너부터 성냥을 그어라!"
>
> "....."

8)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2003), 378쪽.

현수가 자세를 바로 하였을 때 다른 대원들은 이미 달려가고 있었다. 가호 수와 대원 수는 비슷했다. 한 사람이 한 집은 맡아야 했다. 달려가기는 현수가 늦었지만 성냥불은 맨 먼저 그어댔다. 다른 대원들은 선임하사인 기호의 명령을 기다렸던 것이다.

순식간에 부락은 화염에 싸였다. 대원들은 각기 이십 보쯤 물러서서 지켜보고 있었다. (…) 현수는 그 다음 순간,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리며 몇 발자국 물러섰다.

현수가 서 있는 방향에서 흡사 넝마 같은 옷에 불길을 휘저으며 그림자 하나가 걸어나오고 있었다. 육십은 되었을 노인이었다.

"뭘해 현수!"

기호의 고함소리에 반사적으로 고개를 바로 한 현수는 방아쇠를 당겼다. 검은 그림자는 비명도 없이 불더미 속으로 거꾸러졌다. 그 연후에도 현수는 그냥 방아쇠를 당기고 있었다. (…) 대원들은 그냥 사격을 계속하고 있었다. (…)

부락을 뒤엎었던 불길은 미구에 가라앉았고 자욱했던 연기도 안개와 더불어 점점 연해졌다. 오늘도 변함없이 솟아오른 태양 빛 속에 부락 안을 한 바퀴 돌고 온 기호는 혼잣말처럼 뇌까렸다.

"열일곱이나 남아 있었군."(「집행인」, 578~579쪽)

오도롱만 남겨놓고 다섯 부락 모두가 한날 한시에 불타던 노형리 소까이. (…) 산폭도가 양민 가운데 숨어 살기를 머릿니가 걸바시 헌 머리에 서캐 쓸 듯 하니 어느 하세월에 챙빗으로 굵은니며 가랑니며 서캐를 훑어내 잡을 것이냐. 아예 석유기름 붓고 머리칼을 홀랑 태워버리는 것만 같지 못하다는 거였다. 그래서 마을을 불태운단다. 생사람 대가리에 석유를 부어 불태우다니, 머릿니 잡는다고 생사람 잡는 게 소까이란 말인가. 집과 양식이 불타고, 소개민 중에는 폭도 가족이라고 지목된 여편네들이 여럿 죽고 심지어는 할망, 할으방마저 더러 죽었다.(「도령마루의 까마귀」, 84~85쪽)

그 무섭던 소까이(疏開). 온 섬을 뺑 돌아가며 중산간 부락이란 부락은 죄다 불태워 열흘이 넘도록 섬의 밤하늘을 훤히 밝혀 놓던 소까이. 통틀어 이백도 안 되는 무장폭도를 진압한다고 온 섬을 불지르다니, 그야말로 모기를 향해 칼을 빼어든 격이었다. 그래서 이백을 훨씬 넘어 5만이 죽었다. 대부분 육지서 들어온 토벌군의 혈기는 그렇게 철철 넘쳐 흘렀다. 특히 서북군은 섬

> 울 바다 속으로 가라앉힐 만큼 혈기방장하였고 군화 뒤축으로 짓뭉개어 이 섬을 지도상에서 아주 없애버릴 만큼 냉혹했다.
>
> 월남 파병 소대장이었던 중호는 그것이 말이 소개이지 실은 초토작전임을 익히 알고 있었다. 소개란 취약지구의 인원과 물자를 후방 안전지대로 후송시킴을 뜻하는데, 인건 숫제 마을에 불을 놓아 물자를 모조리 태워버리고, 거기다가 폭도들이 섞여 있을지 모른다고 인원마저 파괴했으니, 초토작전보다 더 가혹한 것이었다. 게릴라란 물고기와 같아서 인민이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라고 월남에서 배웠지만, 섬 폭도들과 중산간 주민들도 이와 비슷한 불가분의 관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다. 그렇지만 소개작전이란 것이 교본 그대로, 못에서 인민이란 물을 퍼내어서 게릴라란 물고기들이 서식처를 잃고 자멸하도록 하지 못하고 못 자체를 티엔티로 무참히 파괴해 버렸으니 무수한 물고기들이 배 터져 죽었다. 누구는 편리하게 이렇게 말할지 모른다. 전쟁이란 으레 그런 거다, (…) 그러나 그건 전쟁 중에 일어난 게 (…) 아니라 좌익 폭동 진압이었다.(「해룡 이야기」, 125~126쪽)

「집행인」에서는 무장대의 거점을 없애기 위해서 소개작전은 불가피했다고 말하고 있다. 설사 거기에 노인이나 부녀자가 있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이 토벌대에게 닥친 현실이었음을 강변한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나름대로 인간적인 번민도 있었음을 현수의 상황 등을 통해 보여준다. 하지만 현기영의 소설에서는 다른 눈으로 보고 있다. 머릿니 잡는다고 생사람 대가리에 석유를 부어 불태우는 격이라고 그 무모함과 비인간성에 대해 항변한다. 특히 「해룡 이야기」에서는 그것이 명백한 초토화작전이었다며, 전쟁도 아닌 상황에서 그러한 작전을 전개한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사였음을 고발한다.

(4) 축성작업

토벌대는 중산간마을을 중심으로 소개작전을 벌이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을 해안마을에 살게 하였다. 이들은 학교 교실이나 공회당, 창고 등을 활용한 수용소에 집단 수용되거나 친지에게 의탁하여 생활하였다. 그러다가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그들에 대한 정착사업이 전개되었다.

하지만 '재건부락'은 중산간마을 주민들이 원래 살던 거주지가 아니라, 잔여 무장대의 습격을 막고 무장대를 마을과 격리·고립시키는 '전략촌'으로서 일정 지점에 건설되었다. 주민들은 석성(石城)을 쌓는 일에 강제로 동원되었다.[9] 이른바 '축성작전'이다.

> (…) 제주도의 총성은 멎은 셈이었다. 산간부락 소탕작전에 이은 해안부락 축성작전(築城作戰)이 끝남으로써 공비들은 독안에 든 쥐가 되었던 것이었다. 화산지대인 제주의 돌은 가벼웠다. 해토와 더불어 비롯된 축성작전은 한 달도 채 안 걸렸으며 각 단위부대는 한라산 중복으로 이동된 것이었다. 부락 방위는 경찰과 민보단만으로도 족하여서였다.(「집행인」, 593쪽)

> 울력꾼들은 이제 성담을 끼고 도령마루 쪽으로 걸어간다. 어른 키의 두 배 높이는 실히 됨직한 성담을 올려다보고, 또 성담 따라 끝간 데까지 눈길을 보내어, 성이 멀리 도령마루 위로 가물가물 기어오르는 모양을 바라보면서 귀리집은 새삼 놀란다. 한 달 새에 저렇게 많이 일을 했나? 고생도 되게 하긴 했지. 손끝이 닳아 조막손이 되는가 싶었지. 특히 왼손은 흉측하기가 말이 아니다. 한 번 찍힌 돌에 검지는 손톱이 빠지고 중지는 가운데 뼈마디에 혹이 생겼다. 그러나 내일이면 이 지긋지긋한 역사가 모두 끝난단다. 이제는 설마 울력 나오라는 말이 다시는 없겠지.(「도령마루의 까마귀」, 83쪽)

「집행인」에서는 4·3 당시에 전개된 축성작전을 '가벼운' 돌을 쌓는 쉬운 작업으로 그리면서 대수롭지 않게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도령마루의 까마귀」에서는 돌에 찍혀 손톱이 빠지고 뼈마디에 혹이 생겼다는 정황 등을 통해 '지긋지긋한' 고생으로 묘사한다. 「순이 삼촌」의 경우에는 축성작업에 동원된 제주민중들의 아픔을 더욱 적나라하게 그려낸다. 노인, 여자, 어린아이 등이 낮에는 허기를 견디며 축성하고, 밤이면 그 성에서 보초를 서야 하는, 이중의 고통이 구체적으로 형상화된다.

> 부락민들은 순경들의 감독을 받으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눈 팔 새 없이 허기진 배를 안고 성을 쌓지 않으면 안 되었다. 말하자면 전략촌 건설이었다. 불탄

9) 위의 책, 511~512쪽.

집터의 울담도 허물고 밭담도 허물어다가 성을 쌓았다. 그것도 모자라 묘지를 두른 산담까지 허물어다 날랐다. 순이 삼촌도 임신한 몸으로 돌을 져 날랐다.

남정들이 출정해버린 부락에 남은 건 노인과 아녀자들뿐이라 그 역사는 거의 두 달 가까이나 걸렸다. 전략촌을 두 바퀴 두르는 겹성이었다. 두 성 사이에는 실거리나무, 엄나무 따위 가시 많은 나무를 베어다 넣었다. 길수형과 나 같은 어린애도 동원된 그 일은 참으로 고되었다. 우선 배가 고파 견딜 수 없었다. 허기진 뱃심으로 돌덩이를 들다가 힘에 부쳐 놓치는 바람에 발등을 찍히는 사람들도 많았다. 겨우 성이 완성되자 낮이나마 주낙질과 물질이 허락되었다. 밤이 되면 성문이 닫혀 사람들은 일체 성밖 출입이 금지되고 순번제로 초소막을 지키러 나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국민학교 3, 4학년에서 일년 째 쉬고 있던 나와 길수형도 대창을 하나씩 들고 막(幕)을 지키러 나가곤 했다. 순이 삼촌도 만삭의 몸인데도 우리 초소에 대창 들고 막 지키러 나왔다.(「순이 삼촌」, 76~77쪽.)

(5) 상흔

4·3은 3만의 죽음으로서만 끝난 것이 아니었다. 갖가지 상처를 남겼고 그것은 결코 쉽게 치유될 수 없었다. 4·3의 상흔이 아직도 깊이 남아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집행인」이나 현기영 초기소설이 인식을 같이한다. 그러나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 서로 판이한 인식임이 드러난다.

엄청나게 넓은 은판(銀板)—그것이 호수임을 알아차린 현수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뒷걸음질쳤다. 그 호반에 일곱 개의 익사체가 질서있게 누워 있지 않은가—현수는 객차 도어 앞까지 물러섰다. 그리고 뒤돌아보았다. 찻바퀴 돌아가는 소리가 요란하다. 그 소리에 맞추기라도 하듯 아까의 그 익사체들이 일렬횡대로 서서 저만치서 다가오고 있지 않은가. "악—"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당황히 객차 도어를 열고 쏜살같이 그 안으로 들어가 고개를 든 현수는 마치 감전된 듯 거기에 서 버렸다. 대부분이 행상(行商)이나 그와 같은 사람으로 보이는 삼등 승객들은 차창에 머리를 기댔거나 서로 어깨를 맞대거나 무릎에 얼굴을 묻었거나 한 자세로 죽어 있지 않은가. 찻바퀴 돌아가는 소리로 해서 코고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 그것이 착각임을 깨닫기엔 시간이 소요됐다.(「집행인」, 579쪽)

하루는 이웃집에서 길에 멍석을 펴고 내다 넌 메주콩 두 말이 감쪽같이 없어졌는데 그 혐의를 평소에 사이가 안 좋던 순이 삼촌에게 씌워놓았다. 두 집은 서로 했느니 안 했느니 옥신각신 다투다가 그 집 여편네가 파출소에 가서 따지자고 당신의 팔을 잡아끌었던 모양인데 파출소 가자는 말에 당신은 대번에 기가 죽으면서 거기는 못 간다고 주저앉아 버리더라는 것이었다. 그러니 자연히 당신이 콩을 훔친 것으로 소문나버릴밖에. 당신이 그전서부터 파출소를 피해 다니는 이상한 기피증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알고 있었지만 그건 일단 씌워진 누명을 벗기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당신은 1949년에 있었던 마을 소각 때 깊은 정신적 상처를 입어, 불에 놀란 사람 부지깽이만 봐도 놀란다는 격으로 군인이나 순경을 먼 빛으로만 봐도 질겁하고 지레 피하던 신경증세가 진작부터 있어온 터였다.(「순이 삼촌」, 47쪽)

「집행인」의 현수가 4·3토벌 상황에서 겪은 일들에 대한 충격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 기차를 타고 가던 중 차창 밖의 호수를 보고는 시신을 떠올리고, 좌석의 승객들을 모두 시체로 착각한다. 반면에 「순이 삼촌」의 순이 삼촌도 군경토벌대에 대한 공포로 시달리고 있다. 학살집행인의 트라우마(trauma)를 강조한 「집행인」에 맞서 학살대상자였던 이의 그것을 제시하고 있다. 순이 삼촌은 군경에 대한 기피증으로 누명을 뒤집어쓰고 있다. 토벌군이 고통이 아무려면 학살 현장의 시체더미를 헤치고 기적적으로 살아난 이의 고통에 견줄 수 있겠느냐는 의도가 엿보인다.

3. 마무리

이상에서 우리는 현기영의 「순이 삼촌」·「도령마루의 까마귀」·「해룡이야기」 등 3편의 초기 단편이 비슷한 처지에서 활동을 벌인 작중인물들에 대한 형상화 방식이나 초점주체의 인식 세계, 노래·포고문·소개·축성작업·상혼 등의 상황들에서 곽학송의 「집행인」에 그려진 상황과 상반되도록 형상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현기영이 매우 의도적으로 4·3에 대한 공식역사를 뒤집으려는 전략에 따라 용의주

도하게 구사된 데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결국 현기영의 이러한 '되받아쓰기' 전략은 상당한 반향을 일으키면서 성공을 거두게 된 것이다. 현기영의 소설은 이렇게 지역의 현실을 진지하게 탐색하고 '지역의 눈'으로 진실에 접근함으로써 왜곡된 역사를 뒤집을 수 있었다. 그래서 그것은 모범적인 지역문학으로서의 위상을 넘어 의미 있는 분단문학으로서, 당당한 민족문학의 대열에 우뚝 서게 된 것이다.

'지역의 눈'을 가져야 한다는 말을 두고 편협한 시각이라고 우려하는 이들도 있으리라고 본다. 아마도 협소한 지역이기주의로 흐르지 않을까 염려해서일 것이다. 하지만 '지역의 눈'을 갖는다는 것은 지역이기주의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오래된 중앙집권에 짓눌려 진정한 가치를 모르고 내팽겨쳐진 지역의 삶에 대해 본래의 자리를 되찾아주자는 것이 어찌 지역이기주의일 수 있겠는가. 미국화나 다름없는 세계화 논리에 토착민의 정체성이 마구 휘둘리는 상황에서 자기 땅에 탄탄히 발을 딛고 실생활 속에서 적극 실천하자는 발언을 어찌 편협하다고 비난할 것인가.

지극히 우려되는 이 상황에서 문학이야말로 확실히 깨어 있어야 한다. 문학이 독자와 점점 멀어지는 것은 절실한 삶의 문제에 대한 작가의 관심이 치열하지 못한 점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지역문학은 더욱 그러하다. 지역문학이 성공하려면 진지하고 명쾌한 '지역의 눈'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지역의 눈'을 갖춰 성공하는 지역문학은 나아가 훌륭한 민족문학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 '지역의 눈'은 기층민중의 입장과 상통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지배이데올로기에 대한 저항을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마련이다. 제주 지역문학의 경우 현기영의 초기 4·3소설들이 그것을 충분히 입증해 주었음을 위에서 확인했다.

하지만 성공한 지역문학이 우리 문학에서 아직까지 그리 풍성한 것은 아니다. 지역문학 담론은 아직도 퍽 열악한 편이다. 작단에서도 평단에서도 공히 그러하다. 학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좀더 관심을 가지고 힘써 나아가야 마땅할 것이다.

● 핵심어: 지역문학, 지역의 눈, 되받아쓰기, 현기영의 「순이 삼촌」·「도령마루의 까마귀」·「해룡 이야기」, 곽학송의 「집행인」

<Abstract>

The Way Regional Literature Exists

Kim Dong-yun

Korean people have long been forced to live only as a citizen of the nation without completely taking root in their own region. As a result, particularity has been suppressed in favor of universality, and the whole nation has been absorbed in the Seoul-centered logic of culture. It shows that there exists severe colonialism even within the nation. Grim reality shows that regional literature is severely distorted and compromised. In order to overcome this situation and make regional literature a success, an "eye for the region" is essential. Only when post-colonial regional literature develops dramatically with an "eye for the region," can national literature be booming. By observing Jeju's April 3rd Incident through an "eye for the region," Hyeon Gi-yeong successfully wrote back to the officially accepted description of April 3rd Incident as an communist uprising, and restored the experience of the general public in Jeju. His first three writings of April 3rd Incident are *Aunt Suni* (1978), *A Crow in Doryungmaru* (1979), and *The Story of a Sea Lion* (1979). These are interpreted as stories intentionally written with the write-back strategy, bearing in mind *Executor* (1969) by Kwak Hack-song from a punitive force. This can be verified from the fact that he reversed every major character, incident and situation. In conclusion, Hyeon Gi-yeong obtained brilliant results in not only regional literature but also national literature through the write-back strategy of an "eye for the region."

• Key Words: regional literature, an eye for the region, write-back, Hyeon Gi-young's *Aunt Suni*, *A Crow in Doryungmaru*, and *The Story of a Sea Lion*, Kwak Hack-song's *Executor*